

코로나에 집중된 2년...비만·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악화

비만을·당뇨·고혈압 진단 등 전년대비 증가해 우울감 악화, 인스턴트 식품 등 섭취도 늘어나 “2년간 만성질환 관리 공백...투자 집중 필요”

2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온 의료 대응 체계가 방역에 초점을 맞춘 사이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보건소에서 통계를 산출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22만9242명을 대상으로 했다. 만성질환 관리 영역을 보면 비만율은 2021년 32.2%로 전년대비 0.9% 포인트 증가했다. 체중조절 시도율은 전년대비 0.3% 포인트 감소한 65.5%다.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20.0%,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8.8%로 각각 전년대비 0.8% 포인트, 0.5% 포인트씩 늘었다.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전년대비 0.2% 포인트 증가한 93.3%인데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전년대비 0.3% 포인트 줄어든 91.2%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질환 관리지표가 악화된 결과는 최근 보건소 등 지방정부의 보건역량 역할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약 2년간 공백이 발생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영역에 보다 많은 투자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행태 영역을 보면 흡연율은 2009년부터 지속 감소해 2021년 19.1%로 나타났다. 음주의 경우 월간음주율은 2021년 53.7%로 전년대비 1.0% 포인트 감소했고 월간폭음률도 같은 기간 1.3% 포인트 줄어든 30.6%였으나 주 2회 이상 폭음하는 고위험음주율은 오히려 0.1% 포인트 증가한 11.0%였다. 신체활동을 보면 걷기실천율이 2020년보다 2.9% 포인트 개선된 40.3%로 증



가했으나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율은 이 기간 0.1% 포인트 감소해 19.7%로 파악됐다. 신체활동 중 코로나19 유행 첫 해인 2020년에 비해 신체 활동이 늘었다는 응답은 7.5%에서 8.0%로, 음주가 줄었다는 응답은 42.8%에서 43.4%로 증가했으나 인스턴트 식품 등의 섭취가 늘었다는 응답도 21.5%에서 25.3%로 증가했다. 정신건강의 경우 우울감 경험률은 6.6%에서 6.7%로,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년과 동일한 26.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개인 위생 영역의 경우 손 씻기 실천율 94.5%, 비누나 손 세정제 사용률은 89.3%로 높게 나타났으나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방역 수칙과 관련해 실내 마스크 착용률 99.9%, 야외 마스크 착용률 99.8%로

높았다. 지역별 격차를 보면 2020년 대비 총 17개 지표에서 각 시도별 격차가 감소했으나 14개 지표에서는 오히려 격차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9.3% 포인트),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7.6% 포인트) 등의 격차가 크게 감소한 반면 비누·손 세정제 사용률(5.8% 포인트), 외출 후 손 씻기(2.5% 포인트) 등은 격차가 증가했다. 정 청장은 “매년 발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 문제와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봄나들이 불청객 ‘참진드기’ 주의보... ‘발열 증상땀 병원방문’

최대 일주일간 흡혈...의료기관 방문해 제거해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자료.

질병관리청은 참진드기 발생을 감시하는 사업을 4월 3주부터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 위험이 높은 참진드기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해 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나타낸다.

인체 감염은 주로 4~11월에 발생하는데 참진드기에 물리면 고열,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연중 전국 지역별 참진드기 발생을 감시하는 것으로, 전국 16개의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를 통해 사람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사한 후 월 1회 참진드기 발생 정보를 제공한다. 참진드기를 통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전파가 아니어서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은 적지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의료진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받아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진드기에 물린 후 15일간 발열, 구토, 설사 등 임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참진드기를 피하기 위해선 풀밭에 30분 이상 머무르지 말고 특히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소매와 옷, 긴 바지를 착용하고 활동 후 잘 씻어야 한다. 참진드기는 숙주에 닿으면 3~7일간 계속 흡혈을 한다. 참진드기를 직접 제거하는 것은 어렵고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올여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참진드기 발생이 증가하고 하반기에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진드기와 접촉 확률이 높아져 SFTS에 감염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5~11세 코로나19 접종 이상반응 20건 신고 3만2078건 중 0.06%...두통·피로 등 대부분 경미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만 5~11세 중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20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이었으나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1건도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만 5~11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3만2078건 중 이상반응은 20건이 신고됐다. 신고율은 0.06%다. 신고 사례 중 발열과 복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 95%인 19건이었으나 중대한 이상반응 의심 신고도 1건 있었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였으며 현재 해당 환자는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이 5~11세 접종자 102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상반응으로는 주사 부위 통증 309명, 근육통 132명, 두통 97명, 피로감 95명, 발열 94명 순으로 많았다. 뉴시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계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안)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